

『敬信錄諺釋』의 독자 중심적 언해 특징 분석

서수백* · 김선희**

— || 차례 || —

1. 머리말
2. 연구 대상
3. 언해 분석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신록언석』(1880)에 나타난 독자 중심적 언해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경신록언석』은 선행과 악행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중국의 『경신록』을 언해한 한글 전용의 언해문이다. 언해 목적이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권선징악’을 알리는 인류보편적인 것이라는 것과, 내용 전체가 한글 전용이라는 특징은 『경신록언석』이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1차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경신록언석』에 수록된 15장은 모두 예화 중심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비교적 쉽고 흥미롭다. 독자들은 흥미롭게 내용을 접하는 가운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경신록언석』에는 원문의 어휘를 그대로 한글로 옮겨 쓰는 연용 언해가 많다. 『경신록언석』의 연용 언해는 난해한 한자어들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적으로 쉽게 소통되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독자층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연용 언해가 독자층에게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되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연용 언해를 통해 『경신록언석』의 언해자는 원문 『경신록』을 최대한 살려 전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경운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조교수

** 경운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경신록언석』에는 언해의 문맥 이해를 위해 설명이나 부가적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두 줄로 쓴 작은 글자의 협주가 있다. 이것은 독자층에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협주의 형식도 대부분 ‘~것’, ‘~이름’, ‘~말’ 등과 같은 명사로 간결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협주는 『경신록언석』의 언해가 독자 중심적임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더불어 『경신록언석』에서 협주가 있는 한자어 중 현대국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다. 이는 어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연구 가치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경신록언석』에 대해 국어학적 분석이나 직역과 의역의 판단보다는 언해자가 독자층의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언해한 특징적 양상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번역학적인 관점에서 조선조 언해물들을 해석하고 언해문과 독자층의 거리를 기준으로 그 효용적 가치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경신록언석, 도교, 독자, 언해자, 한글 전용, 연용 언해, 협주

1. 머리말

언해문에 대한 연구는 표기, 어휘, 음운 등 국어학적 특징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언해의 과정이 언해자가 원문의 내용을 독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1차적인 목적에서 시작된다고 볼 때, 언해자의 언해 태도 혹은 그 방식을 살피는 것은 언해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데 보다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이러한 연구의 방향은 여찬영(2003, 2004, 2006, 2007) 등에서 나타나는데, 여찬영(2003, 2004, 2006, 2007)은 조선조 언해서들을 하나의 번역물로 보고 번역학적 관점에서 언해문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언해자와 독자와의 거리를 중시하고 그 적합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언해문의 특징을 밝히는 데 있어, 표기, 어휘, 음운 등 국어학적 특징을

비롯해 시대적 상황 고찰이나 판본의 비교, 언해자 정보 등 많은 요소들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중 본고에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포괄적, 집중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19세기 후반의 언해문 『경신록언석』을 대상으로 하여 언해 목적, 언해 체재, 수록 항목, 연용 언해, 협주 체재 등 몇 가지 언해 방식을 중심으로 『경신록언석』에 나타난 독자 중심적 언해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¹⁾

『경신록언석』은 선행과 악행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중국의 『경신록』을 언해한 책이다. 중국의 원작을 우리글로 번역한 번역물인 것이다²⁾. 『경신록언석』의 편찬 목적이 선행과 악행에 대한 하늘의 보응을 보고 선행의 삶을 깨우치고자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 만큼 식자층과 비식자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독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편찬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 『경신록언석』의 표기 방식이다. 언해 목적, 시기, 언해자, 독자층 등에 따라 언해의 방식이 차이가 있겠지만 한문 원문이 언해문에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언해서들과 달리 『경신록언석』은 한글로만 언해되어 있다. 언해문의 표기는 언해자가 원문의 내용 전달과 독자층의 수용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자의적 선택일 것인데, 표기 방식에 따라 원문의 전달과 독자층의 확대를 달성하는 정도는 다를 것이다.

1) 『경신록언석』에 관한 연구로는 남광우(1970), 최혜영(1997), 석주연(2007, 2010), 여찬영(2003) 등이 있는데, 남광우(1970)은 『경신록언석』의 국어학적 특징에 관한 내용이고, 최혜영(1997), 석주연(2007, 2010)은 도교 관련 문헌으로 그 간행 경위와 ‘善書’로서의 특징을 다루었다. 여찬영(2003)는 번역비평적 관점에서 조선조의 언해물들을 비교 분석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독자 계층을 중심으로 볼 때 『경신록언석』이 번역물로서 독자적인 번역 양상을 띠는 언해임을 언급하였다.

2) 본고의 목적은 『경신록언석』을 번역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기보다 학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경신록언석』의 언해 특징을 분석하여 『경신록언석』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데 있다.

2. 연구 대상

『경신록언석』의 판본으로는 1796년에 홍태운이 쓴 천보산 불암사본이 있고, 1880년에 고종의 명으로 최성환이 번역한 목판본이 있다. 두 판본은 표기나 판식(版式) 등에 차이점이 거의 없으나, 전체 분량에서 차이가 있다. 1796년본은 1권 1책 86장으로 되어 있고, 1880년본은 원간본의 간기와 지(識)가 있는 끝부분 2장이 누락되어 1권 84장으로 되어 있다. 한문본의 수록 항목은 19가지인데, 언해본의 수록 항목은 15가지로 되어 있다. 1796년 불암사본은 1981년 홍문각에서 영인한 바 있다.³⁾

이들 중 본고의 대상 문헌은 영남대에 소장되어 있는 1880년본 『敬信錄 諺釋』이다.⁴⁾

한문 원문과 언해문을 대조하여 병렬말뭉치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경신록언석』에 나타나는 독자 중심적 언해 특징을 추출해 낼 것이다.

3) 1880년 고종의 명으로 한문본과 함께 언해본 『경신록언석』이 간행되었지만 한문본이 19개의 경문으로 이루어진 반면 언해본은 15개의 경문으로 이루어져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다. 고종의 명으로 다시 간행된 1880년본은 1976년의 판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표기나 판식에 차이가 없다. 다만 책 앞의 면지 가운데 ‘통천옹운조극 돈륜주상전하 統天隆運肇極敦倫主上殿下 명인 名印’ 오른쪽에 ‘화피초목 化被草木’, 왼쪽에 ‘뇌급만방 賴及萬方’이라고 쓰여 있고, 책의 끝부분에 ‘주상전하수극영창 主上殿下壽極永昌’, ‘중궁전하수여항승 中宮殿下壽如恒升’, ‘세자저하수산복해 世子邸下壽山福海’란 글과 간기 ‘광서육년경신계춘간인 光緒六年庚辰季春刊印’이란 것이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최혜영(1997:134)

4) 본고에서는 독자 중심적 언해 방식에 대한 연구가 주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이본 비교는 다루지 않았다. 후대본인 1880년본을 주 분석 대상 자료로 하여 언해 특징을 살폈다.

3. 언해 분석

언해는 수용과 전달의 과정이 있다. 원문 수용자인 언해자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겨 독자층에게 전달하게 된다. 전달의 과정에서 언해자는 언어 수신자 즉 독자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언해의 목적과 독자층에 따라 언해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삼강행실도』를 비롯해 백성의 ‘교화’를 목적으로 편찬된 조선조의 여러 언해문을 살펴보면 언해 방식이 모두 일관되지 않고 각각의 언해 방식이 있다. 『삼강행실도』나 『이륜행실도』에는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있고, 『효경언해』에는 한자마다 한자음이 달려 있고 『정속언해』에는 원문의 내용을 간략화하고 층위변환시키는 방식 등이 언해의 방식으로 활용되었다.⁵⁾ 언해 방식이 다르더라도 언해의 공통된 목적은 독자층에게 원문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을 것이다. 독자층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언해 방식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다를 것이다.

『경신록언석』의 내용 전체가 한글 전용이라는 특징적 양상은 무엇보다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것을 기본 출발선으로 하여 『경신록언석』의 독자 중심적, 효용적 언해 특징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본다.

1) 언해 목적

언해문은 언해의 목적에 따라 독자층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독자층이 수월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해가 진행된다.⁶⁾ 따라서 언해

5) 여찬영(2003: 202, 2004b: 410, 2007: 5-20) 참조.

문 분석에 있어 언해 목적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대상 언해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경신록언석』의 언해 목적과 언해 경위는 1796년 불암사본에 제시된 내용으로 잘 알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신록이라 흡은 엇지 닐음고 축흔 일을 권장하옵고 사오나온 일을 징계하
 옹는 말슴과 일을 기록흔 칙이오매 공경하고 미드라 하미니 성현 선분의 인물
 제도 하옵는 권계와 텃디귀신의 선의 보음하옵는 령험이 쇼쇼히 벌어 실녀시
 니 엇지 가히 공경치 아니하며 엇지 가히 밋지 아니하리오 공경흔즉 정성으로
 밋들며 미든즉 즐겨 좃출지라 이러므로써 중국 사름은 이 칙을 경신하와 건릉
 괴스로 지어 신축이삼십여 년 지간의 십일츠를 삭여시니 그 경신하는 재 만코
 여러 벌 박이매 판본이 쉬히 만환하를 가히 알지라 다형이 칙이 아동에 류리
 훈 거시 이셔 어더 보온즉 사름을 권계하여 세상을 구제하시미 지성축달하와
 인류의 당연흔 도리로 인도하오매 선악의 과죄 진절을 명백하오니 그 경하고
 신하을 배 실노 일호 의심이 업스올시 날니 전포치 못하미 통석흔지라 인하여
 동지 자약간인을 어더 발원합력하와 진즈판본을 기간하여 일부 경단이 되오
 니 식재 보고 차탄 왈 이 쏘흔 옛튼 공덕이 아니나 진즈는 유식장부들은 보면
 알아 봉행하기 쉽거니와 녀즈며 무식천류들은 비록 가르쳐 닐을지라도 조그
 안목으로 보는 것만 못하니 언셔로 히석하여 판의 삭여 금후 사름의게 광권하
 면 엇지 즐겹지 아닐야 하야늘 이 말슴이 정히 올흔지라 드디여 일위 신녀의
 지를 빅여금으로써 기간홀시 모도 다 삭길 힘 업스와 그 중 더 긴 절흔 거슬
 썩고 쏘 단계적이란 칙을 추후 어더 보온즉 죠흔 말슴이 만스오되 힘이 막음
 을 밋지 못하와 판본을 못 내오므로 그 중 두 도목을 썩와 이 칙 쏘히 부쳐
 일권을 밋드오니 청하스신 즈는 언석하고 중은 중흥시교정선셔하와 일흠을
 경신록언석이라 혼온지라 이에 진언량본으로 만세의 보벌을 전하오니 선스공
 덕으로 복슈를 누리며 악스 죄과로 양화를 밋는 규되 환연히 붉은지라 부질업

6) 그러나 언해자의 언해 방식이 독자층의 내용 수용 폭을 넓히는 데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는 쇼설보와 앓가온 날을 허송하느니 이 신심에 유익할 글을 보와 작복소지하
 미 어지 다형치 아닐이오 브라건디 귀천가의 이 칙 훈 별식 경히 공봉하어
**두고 써서로 보며 넓어 권계하온 말슴을 경신하와 봉행하면 즈연이 일개 화길
 하야 복슈를 안향하고 심전 스후의 쾌락이 무궁하며 즈즈손손의 다함 업는
 복종을 영미리에 전홀이니 엇지 아니쾌 하오며 엇지 아니 즐거울잇가** 태미
 선군슈훈에 널으시되 만일 착흔 글노빠 일인의게 전하는 자는 심선을 당하고
 심인의게 전하는 자는 빅선을 당하고 대부귀어나 대호결의게 전하는 자는 천
 선을 당하고 널비 전포하여 무궁하고 거둠 삭여 석지 아니게 하는 자는 만만
 션이라 하와느니 이런고로 당판경신록 신축본 뜻히 박여 도론 사롬 기록할
 거술 보은즉 십여부로부터 수십부 수백부 지어 천부훈이 만호며 강남삼의 당
 호 【성즈만췌터라】 는 일만부를 박여 전포하여시니 지물이 있다 도허러니와
 션심이 장히 거륵흔지라 다시 브라건디 유심하오신 이들은 힘디로 인출하야
**세상에 전포하여 남녀로쇼 귀천인 등으로 하여곰 션스란 흥기하야 힘빠 닥그
 며 악업으란 징계하야 곳쳐 말야 각각 복단을 심어 뼈 성세풍화 가온디셔 한
 가지로 태평을 안락하게 하오쇼셔**

병진중추법성산무심기무운신스지형관슈근지

위 내용에서 보면 선(善)을 광권(廣勸)하고 악(惡)을 경계하라는 내용
 이 기록된 중국의 『경신록』이 중국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새겨졌고 이를
 중국 사람들이 널리 읽고 경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언해자 스스로 『경
 신록』의 내용에 매우 감탄하며 이를 우리의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함을 통
 석하게 여김이 나타난다. 아동에 유래한 원작 『경신록』을 식자층은 이해하
 기 쉽지만 비식자층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
 이 읽을 수 있도록 언서로 해석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고 악한 일은 경계하여 풍파 많은 세상에서 태평안락을 누
 리기를 바라는 기원이 말미에 나온다.⁷⁾

7) 석주연(2007: 117-118)에서 도교 관계 문헌의 간행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 아래 편찬된 『경신록언석』은 식자층뿐만 아니라 비식자층, 남녀노소, 귀천인 등 폭넓은 독자층에게 광범하기 위해 한글 언해 방식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글 전용의 『경신록언석』은 언해자가 원문의 한자 없이 한글로만 표기하여 시각적으로도 복잡하지 않고 간명하여 비식자층의 독자가 접근하기에 심리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또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어 식자층이든 비식자층이든 이해하기에도 쉬운 언해 방식이다. 이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경신록언석』의 언해 목적에 부합한 언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언해 체재

『경신록언석』(1880)은 1권 84장으로 되어 있다. 한 면이 11행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행에는 책의 제목이 ‘敬信錄諺釋경신록언석’으로 나온다. 이어 2행부터는 각 장별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먼저 각 장의 제목이 첫 행에 한자 제목과 한글 제목이 병렬로 있고 다음 행부터 해당 장의 본문 내용이 나온다.

각 장의 제목은 한자와 한글 두 가지 형식이 모두 제시되는데 한자 제목이 먼저 나오고 이어 한글 제목이 같은 행에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은 한문 원문 없이 한글로만 기록되어 있다. 15장의 장별 수록 내용 분량은 차이가 있는데 ‘行不費錢功德例 헝불비전공덕례 【돈허비아니코헝논공덕】’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또,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어려

이에 의하면 조선 숙종 이후 영조, 정조 등의 왕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제신앙을 강조하였고 개화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관제신앙을 중심으로 한 도교 신앙이 전래되었다. 혼란한 정세에서 야기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제신앙에 심취한 고종은 직접 명하여 도교관계 문헌을 간행케 했다. 이들 도교관계 문헌들은 ‘한글’을 매개로 하여 보다 폭넓게 배포될 수 있었다.

운 한자어나 설명이 필요한 고유명사 등에 대해서 두 줄로 쓴 작은 글자의 협주가 있다. 협주의 특징은 종결 형식이 명사 종결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이다.

『경신록언석』 원문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신록언석』 1a)



『경신록언석』 66a)

3) 수록 항목

다음은 『경신록언석』에 수록된 내용의 목차이다. 한문본에는 19가지가 수록되어 있지만 언해본 1880년본과 1796년본에 수록된 항목은 15가지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 자료인 1880년본의 수록항목은 다음과 같다.

【『경신록언석』(1880) 수록 항목】

순서	한자제목	한글제목	수록면
①	太上感應篇	태상감응편	(1a:2) ~ (8a:6)
②	文昌帝君陰騭文	문창대군음즐문	(8a:7) ~ (10b:7)
③	文昌帝君勸孝文	문창대군권효문	(10b:8) ~ (13a:2)
④	文昌帝君救劫寶章	문창대군구겁보장	(13a:3) ~ (23a:6)
⑤	敬寵篇	경조편	(23a:7) ~ (24a:11)
⑥	文昌帝君勸敬字紙文	문창대군권경즈지문	(24b:1) ~ (26a:3)
⑦	東嶽大帝回生寶訓	동악대대회생보훈	(26a:4) ~ (26b:7)
⑧	袁了凡先生立命篇	원료범선성립명편	(26b:8) ~ (33b:2)
⑨	俞淨意公遇寵神記	유정의공우조신기	(33b:3) ~ (40b:6)
⑩	感應篇致福靈驗	감응편치복령험	(40b:7) ~ (45b:10)
⑪	陰騭文靈驗	음즐문령험	(45b:11) ~ (56a:9)
⑫	印施敬信錄靈驗	인시경신록령험	(56a:10) ~ (58a:11)
⑬	保身立命要訣	보신립명요결	(59b:1) ~ (59b:11)
⑭	行不費錢功德例	행불비전공덕례 【돈허비아니코홀논공덕】	(60a:1) ~ (79b:11)
⑭-1	官長不費錢功德	관장불비전공덕	(60a:2) ~ (63a:3)
⑭-2	鄉紳不費錢功德	향신 【의골스부】 불비전공덕	(63a:4) ~ (64a:1)
⑭-3	士人不費錢功德	스인 【선빅】 불비전공덕	(64a:2) ~ (65a:7)
⑭-4	農家不費錢功德	농가 【농부】 불비전공덕	(65a:8) ~ (66a:6)
⑭-5	百工不費錢功德	빅공 【온갖장인】 불비전공덕	(66a:7) ~ (67a:3)
⑭-6	賞賈不費錢功德	상고불비전공덕	(67a:4) ~ (67b:10)
⑭-7	醫家不費錢功德	의가 【의원】 불비전공덕	(67b:11) ~ (69a:2)
⑭-8	公門中不費錢功德	공문중 【관가소속】 불비전공덕	(69a:3) ~ (70a:5)
⑭-9	婦人不費錢功德	부인불비전공덕	(70a:6) ~ (71b:8)

⑭-10	士卒不費錢功德	스졸 【군병】 불비전공덕	(71b:9) ~ (72a:9)
⑭-11	僧道不費錢功德	승도 【중과도스】 불비전공덕	(72a:10) ~ (73a:1)
⑭-12	僕婢工役不費錢功德	복비공역불비전공덕	(73a:2) ~ (73b:10)
⑭-13	大衆不費錢功德	대중 【못사람】 불비전공덕	(73b:11) ~ (77b:11)
⑭-14	富貴家費錢功德	부귀가비전공덕 【돈허비하는공덕】	(78a:1)~(79b:11)
⑮	功過格纂要	공과격찬요 【공덕과죄과되는격식 중요로운것모든말】	(80a:1) ~ (84b:10)

위에 제시한 수록 항목들은 모두 예화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비교적 쉽고 흥미롭다. 독자들은 흥미롭게 내용을 접하는 가운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5가지 항목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⑭ 行不費錢功德例 行불비전공덕례 【돈허비아니코하는공덕】는 예화의 중심인 물을 기준으로 14개의 세부 항목이 기록되어 있다.⁸⁾

4) 연용 언해

고대 한어 번역 방식 중 원문의 어휘를 그대로 옮겨 쓰는 방식을 연용법⁹⁾이라 한다. 여찬영(2006: 5)에서 연용법에 대해 “연용법은 원문의 어휘가 우리 국어의 어휘로 남아 있는 경우와 고대 한어에만 존재한 고유명사인 경우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연용된 어휘는 우리의 한자 어휘로 간주하며 비록 일회적 한자어일지라도 의미적 단위로서는 字義 파악에 별 어려움 없이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언해서들의 한자어 표기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원문의 한자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 한글로

8) 각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최혜영(1997: 134~140)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9) 주송식(1989: 242) 참조.

바꾸어 표기하는 경우, 한자와 한글 두 가지 다 쓴 혼종 표기가 있다. 언해문 전체에서 이러한 표기 방식의 일관된 특별한 규칙을 명확하기에 규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혼종 표기인 경우 언해문 전체에서 혼종 표기 유무가 일관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표기를 구분하였는지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여찬영(2006: 9~10)에서 『중용언해』의 혼종 표기 양상을 원문 대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원문의 한자어를 언해문에 쓰는 경우는 한자로 그대로 옮겨 쓰고 원문에 없는 한자어로 한자의 자석(字釋)이나 일반 한자로 쓰이는 한자어는 정음으로 표기하는 일관된 표기 방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한자어의 표기 구분의 기준이 한문 원문의 연용 여부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규칙도 언해문마다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용의 방식은 원문의 내용과 독자층에 따라 언해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경신록언석』에서도 연용적 언해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장의 제목은 원문의 한자와 이를 한글로 표기한 제목이 둘 다 제시하는 혼종 표기의 연용으로 되어 있고, 본문의 내용은 한문 원문의 한자는 쓰지 않고, 원문의 한자어를 한글 표기로만 나타낸 연용적 언해가 상당히 많다. 연용의 방식은 체언류는 그대로 연용하고 용언류는 접미사 -ㅎ(다)와 -히' 등을 활용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원문을 고유어로 풀어 언해한 것보다 원문을 그대로 연용 언해한 것이 더 많다. 이는 언해자가 원작 『경신록』의 내용을 최대한 살려 독자층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원문 의존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번역학적 관점에서 직역과 의역을 구분한다면 직역의 언해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역적 언해는 한자 지식이 없는 독자층에서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용적 언해가 풀어 언해한 것과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어 내용 이해에 혼동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연용적 언해가 독자층에게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되는 이점

이 있을 수 있다. 『경신록언석』의 연용 언해는 난해한 한자어들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적으로 쉽게 소통되는 한자어로 고유어와 등가적 의미를 지니는 한자어들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독자층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의 한자어를 굳이 고유어로 풀어 언해했을 때 장황한 표현이 될 수 있어 식자층에게나 비식자층에게나 문맥 이해의 용이함을 더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경신록언석』의 언해자는 원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 의역으로 인한 언해자의 자의적 해석이 삽입되지 않고¹⁰⁾, 연용 언해를 통해 최대한 원문에 충실한 언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언해자는 독자층이 원작 『경신록』을 충실하게 수용하도록 하는 데 언해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신록언석』에 나타나는 연용 언해된 한자의 예를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용된 한자어)

원문	언해	원문	언해	원문	언해	원문	언해
苛虐	가학	無故	무고	神靈	신령	妻子	처자
干求	간구	無識	무식	神仙	신선	妻妾	처첩
減	감	無益	무익	五穀	오곡	天仙	천선
剛強	강강	無子	무즈	外心	외심	天地	천지
輕慢	경만	無行	무행	憂患	우환	忠良	충량
輕蔑	경멸	福祿	복록	柔順	유순	忠孝	충효
輕重	경중	不仁	불인	淫慾	음욕	悖亂	패란
昆蟲草木	곤충초목	父兄	부형	逸樂	일락	淸福	청복
骨肉	골육	朋黨	붕당	子孫	즈손	狼戾	한려

10) 이어 논의될 『경신록언석』의 협주는 원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지만 언해자의 자의적 해석이라기보다는 내용의 원활한 이해를 위한 객관적 정보에 해당한다.

過度	과도	非義	비의	殘害	잔해	向背	향배
舅姑	구고	殺傷	살상	罪惡	죄악	婚姻	혼인
道德	도덕	先生	선생	地仙	지선	禍福	화복
同學	동학	善惡	선악	眞切	진절	黃衣	황의
禮	례	是非	시비	讒毀	참훼	欽慕	흠모

언해문에 나타난 연용 언해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剛強不仁狼戾自用是非不當向背

강강^하여 불인^하며 흘려^하야 스스로 쓰며 시비를 적당치 아니케^하며 향
배^하미(경신2b:7)

b. 忌無行於妻子失禮於舅姑輕慢先靈違

쳐즈^의게 무형^하며 구고^의게 례를 일^하며 조선 신령을 경만^하며(경신
5b:8)

c. 有水火盜賊遺忘器物疾病口舌諸事

슈화와 도적이며 괴물을 유망^하며 질병과 구설의 모든 일^이어서(경신
6b:4)

d. 經文刑修寺院捨藥材以拯疾苦施茶湯以解渴煩

경문을 박혀 만드며 스원 【절】 을 일위여 중슈^하며 약지를 베껴 절고를
건지며 다탕을 주어 목마르를 풀며(경신9b:1)

e. 善人則親近之助德行於身心惡人則遠避之杜災殃於眷暱

선인^이어든 친근^이 하야 덕행을 신심에 돕고 악인^이어든 멀리 피^하야
지앙을 눈썹의 막으며(경신10a:4)

f. 具慶之父母易事寡獨之父母難夫富貴之父母出入

구경 【네의 갖단 말】 혼 부모 섬기기는 쉽고 과독 【과부와 환부】 혼 부
모 섬기기는 어려오니 대더 부귀^하 부모는 출입^하매(경신11b:3)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문의 한자어들이 연용 언해된 것이 상당수 있다. 연용 언해된 원문의 한자어들은 개별 한자의 뜻으로 풀어 설명하지 않아도 내용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는 한자어들이다. 언해문 d의 스원 【절】이나 f의 구경 【니외 갖단 말】 처럼 연용 언해 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에는 협주가 있다. 이 방식은 『소학언해』의 언해 태도와 유사한데 언해문을 번역비평적 관점에서 살펴본 여찬영(2003: 242~24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학언해 범례에서 “번역소학이 사람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원문에 없는 주의 내용을 함께 풀어쓰다 보니 원문의 뜻을 잃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소학언해에서는 원문에 없는 부분을 없애고 대문에 의거하여 축자작해(word for word translation)를 원칙으로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주해한다고 소학언해의 언해태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¹¹⁾ 이에 대해 여찬영(2003: 243)에서는 “소학언해 언해자의 번역비평적 기준은 내용에 대한 쉬운 이해보다는 원문과의 등가적 의미(equivalent meaning)에 충실함이다 언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경신록언석』을 살펴볼 때 『경신록언석』은 내용의 쉬운 이해와 원문에 충실한 언해를 절충한 언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문 원문의 개입 없이 한글 전용으로 하여 보다 넓은 독자층이 근접할 수 있게 하였고 국어 어휘로 자리잡아 고유어로 굳이 풀이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되는 원문의 한자어를 그대로 연용하였다. 또 어려운 한자어에 대해서는 협주를 달아 원전의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경신록언석』의 연용 언해가 100% 일관된 것은 아니다. 동일 원

11) 戊寅년칙애사름이수이알과다호야字뜻맞기註엿말을아오로드려사겨시모로번거
코용잡흔곧이이심을뒀티문호니이제는지만흔말을업시호야불이고흔곧아으티大文
을의거호야字를조차셔사교디사겨통티문홀곧이잇거든가르주내여사기나라(소학언
해범례1항)

문에 대해 언해문에서 연용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고유어로 풀이되어 나타나는 혼용이 일부 소수 예에서 나타난다.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一日 : 일일 / 하루

a. 人子一日在外父母一日孤悽

인자일일을밖괴이스면부되일일을외롭고슬어흐신느니(경신11b:9)

b. 一邑之人無不飽飫羅之蓄藏一日而盡

일읍사룸이비블너아닐이업고밀의축장은하로에진흐니(경신47b:4)

(2) 善事 : 선스 / 착한 일

a. 遂起求子之願亦許行三千善事辛巳生汝天啓

드디여으들구훤월을일회여또삼천선스를헝흐물허허엇더니신스년의터계

【선싱으들의일흠】를나흔지라(경신31a:4)

b. 先求登科誓行善事三千條以報天地祖宗之德

몬저등과흐물구훤시착한일삼천가지를헝흐야빠턴디와조종의덕잡흐물밍

세흐니(경신30a:9)

(3) 善人 : 선인 / 착한 사람

a. 善人則親近之助德行於身心惡人則遠避之杜災殃於眷睦

선인이어든친근이흐야덕헝을신심에돕고악인이어든멀니피흐야지 앙을
눈썹의막으며(경신10a:3)

b. 所謂善人人皆敬之天道佑之福祿隨

니른바착한사람은사람이다공경흐고턴되도으며복록이쓰로고(경신2a:8)

(4) 七子 : 칠즈 / 칠곱 으들

a. 公居鄉爲善益力其子娶妻連生七子皆有悉嗣書香焉

공이거향흐야착한일흠을더욱힘쓰더니그으들이취쳐흐여런흐야칠즈를나
하다갈너다셔향 【글흐단말】을니은지라(경신40a:11)

b. 見其心專意一孝行動天七子三壻皆列殊科居先證仙果

그막옴이전일흐고뜻지헌결긋흐야효헝이하늘을감동흐를보시고닐곱으들
과세사회물다과거흐고거선느선과물중흐게흐시니라(경신14b:6)

(5) 一子 : 일즈 / 혼 아들

a. 璋姪佳蔚姪媳徐氏臨產雙生於辰時生一子

장의족하가울의안희서시쌍싱을희산홀시진시에일즈를낳코(경신53b:5)

b. 近六旬乏嗣鼎臣募印敬信錄百本十五季臘月即舉一子

륙십이갓가오더즈식이업더니쥬뎡신이즈모바다경신록빅벌을박헛 더니
십오년랍월의혼으들을나코(경신56b:10)

동일 원문에 대해 연용 언해와 고유어로 풀이한 언해가 일부 소수 한자어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혼용 양상의 규칙을 찾기는 어렵다. 이들을 언해의 효용적 측면에서 볼 때 연용 언해나 고유어 풀이 언해나 그 의미는 등가적이어서 내용 이해에 혼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5) 협주 체재

다음은 『경신록언석』에 나타나는 협주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신록언석』에는 언해의 문맥 이해를 위해 설명이나 부가적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小字 雙行으로 협주가 달려 있다.¹²⁾ 특히 원문의 한자어를 그대로 가져와 쓴 연용 언해에서 주로 나타난다. 협주는 신명(神名), 인명(人名), 책명(冊名), 지명(地名) 등의 고유명사와 그 외 일반명사에 달린 것이 대부분이다. 문장이나 어구에 대한 협주가 일부 있다.¹³⁾ 문장이나 어

12) 고영근(1997: 44)에서 협주 자료를 설명하면서 “번안 자료와 언해자료에 나타나는 개별 한자, 특수 한자 어휘를 풀이하거나 본문의 설명을 부연할 필요가 있을 때 번역자(번안자)가 특별히 삽입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협주는 본문 글자의 크기보다 작은 글자로 식자를 하되 한 행에 두 줄씩 배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찬영(2003: 255) 재인용.

13) 『경신록언석』에서 협주는 중복되어 나타나지 않고 동일한 어휘는 1번만 협주가 달려 있다. 예를 들면 ‘과독(寡獨)’은 2회 나타나는데 협주는 ‘과부와 환부’로 한 번만 나타난다.

구에 대한 협주는 특정 어휘에 달린 협주에 비해 길이가 긴 설명형으로 되어 있다. 이를 형식적 측면에서 단형 협주와 장형 협주로 구분할 수 있다.¹⁴⁾ 『경신록언석』에는 단형협주가 장형협주보다 월등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일반명사에 대한 단형협주가 가장 많다. 이는 어려운 어휘들을 쉽게 풀이하여 내용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언해자의 일반적인 언해 방식일 것이다. 『경신록언석』의 협주에서 특징적인 것은 협주의 형식이 대부분 ‘~것’, ‘~일흠’, ‘~말’ 등과 같은 명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ㅎ다’, ‘~이다’, ‘~이라’ 형식의 협주는 소수 나타나는데, ‘일흠은증이니기공을봉ㅎ다(경신 24b:3)’, ‘휘는삼이니즈시라(경신24b:8)’, ‘일흠은옹이니강절선싱이라(경신 27a:6)’, ‘착흔사름쁜칙이라(경신13b:1)’, ‘사오나온사름쁜칙이라(경신13b:2)’, ‘불시와로지라(경신16a:3)’, ‘동리 후학라정어 기록ㅎ니라 (경신40b:6)’, ‘월령광의에널오디오월십칠일이턴디교니턴디이기가교조만물지일이라ㅎ니라(경신59b:6)’ 8개뿐이다. 명사 종결의 협주는 언해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매우 간결한 것으로 독자층에서는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금자(1997: 80~81)에서는 “협주가 번역이 끝난 뒤 소재언어(Source Language)에서 목표언어(Target Language)에로의 충분한 전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명 언어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협주가 번역을 위한 절차가 아닌 근거로 “‘훈민정음언해’, ‘석보상절서’, ‘월인석보서’에서 협주에 새겨진 한자의 새김이나 단어 풀이가 언해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들었다.

본고에서는 협주가 번역 과정이나 아니냐, 혹은 직역적 태도인가 의역적 태도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협주가 언해자의 독자 중심적 언해 태도에서

14) 장형협주는 대체로 본문의 문장이나 문단 뒤에 제시되는 것으로 앞선 문장이나 문단 속의 어려운 한자어들을 모아서 풀이하는 긴 형식이며 단형 협주는 특정 단어 뒤에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만 나타내는 짧은 형식의 협주이다.(박금자 1997: 71~76)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다. 즉 『경신록언석』의 언해 경위를 미루어 원작 『경신록』을 신뢰한 언해자는 원작의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최대의 관건은 독자의 이해도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를 위해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난해 어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협주를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도모한 것이다.¹⁵⁾

『경신록언석』의 단형협주의 또 하나의 가치는 어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협주가 달린 어휘는 대부분 한자어인데, 이들 중에는 현대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있다. 예를 들어 『경신록언석』에서 ‘간후(簡厚)’는 ‘간략하고후중툥말’로, ‘간간정정(乾乾淨淨)’은 ‘마르디마르고조티조툥말’로 설명되어 있는데 현대국어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¹⁶⁾ 이러한 어휘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우리 국어사전에 한자어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수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신록언석』의 단형협주와 장형협주를 현대국어사전 등재 여부와 관련지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이것은 소학언해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분주한 것과 같은 유사한 양상이다. 여찬영(2003: 243)에서는 “소학언해의 언해자들은 사람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번역소학의 번역 방식보다는 직역이 원문의 뜻에 충실하므로 의역보다는 직역이 더 가치있는 번역으로 평가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선을 권하고 악을 경계하게 하고자 하는 언해 목적으로 보다 폭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신록언해는 원문에 의거해 언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6) 본고에서 말하는 현대국어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을 일컫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한자어와 옛말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국어 어휘의 역사적 맥락에서 고대, 중세, 근대 어휘를 현대국어로 연결지어 그 역사를 살피는 것은 어휘사 연구에서 필수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경신록언석』은 19세기 후반의 자료로 현대어와 매우 근접해 했다. 한자어와 옛말이 수록되어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경신록언석』의 한자어가 일부는 수록되어 있고 일부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경신록언석』의 어휘적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어 어휘사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 단형협주 :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家信 : 가신 **【집의편지】** (경신54b:10)
 減糧 : 감량 **【량식감하단말】** (경신31b:11)
 巨室 : 거실 **【큰집¹⁷⁾】** (경신20a:7)
 劫數 : 겁수 **【도치아닌수】** (경신19b:11)
 京師 : 경스 **【서울】** (경신39b:4)
 京邸 : 경더 **【려각집】** (경신54b:7)
 鼓舞 : 고무 **【움작이고우즐겨즐거온거동】** (경신37a:6)
 膏血 : 고했 **【기름과피】** (경신19b:8)
 功過 : 공과 **【공은착훈일이오과는사오나온일】** (경신13b:9)
 功過格 : 공과격 **【공은잘훈일과는못훈일도목훈칙】** (경신30a:11)
 公門 : 공문 **【관가】** (경신50b:8)
 寡獨 : 과독 **【과부와환부】** (경신11b:3)
 關聖帝君 : 관성테군 **【관왕】** (경신59a:6)
 僑居 : 교거 **【우거】** (경신56a:11)
 教典 : 교던 **【불경】** (경신28a:8)
 具慶 : 구경 **【니외갓단말】** (경신11b:3)
 口過 : 구과 **【말의허물】** (경신33b:9)
 勤勤懇懇 : 근근근근 **【근실하고근절튼말】** (경신37b:11)
 兢兢 : 궁궁 **【삼가단말】** (경신30b:3)
 紀 : 기 **【십이년】** (경신1b:2)
 大牢 : 태로 **【원소】** (경신48a:1)
 度世 : 도세 **【장성하단말】** (경신44a:9)
 憧憧 : 동동 **【뜻덩치못하는거동】** (경신36b:8)
 同庠生 : 동상생 **【훈학의선비】** (경신33b:7)
 東洋 : 동양 **【바다】** (경신58b:6)
 雷 : 퇴화 **【벽력불】** (경신14b:11)

17) ‘집’의 오기로 보임.

- 雷公 : 퇴공 **【벽력호는신명】** (경신21a:9)
 百忍說 : 백인설 **【백가지참으란글】** (경신51a:1)
 福田 : 복던 **【복밭】** (경신8b:5)
 浮沈 : 부침 **【쓰락잡기락남호는더로호단말】** (경신35b:5)
 數術 : 부연 **【실정의셔펼쳐느리단말】** (경신37a:9)
 寺院 : 스원 **【결】** (경신9b:1)
 三官 : 삼관 **【신명】** (경신15a:6)
 三光 : 삼광 **【일월성】** (경신6a:8)
 三教 : 삼교 **【유도불도선도】** (경신9a:3)
 參商 : 삼상 **【슴성과상성이서로보지아니니불화의비긴말】** (경신17a:3)
 三尸 : 삼시 **【사름의몸에이셔선악살피는신도】** (경신14b:4)
 生徒 : 싱도 **【학도】** (경신35a:7)
 宜聖 : 션성 **【공죽】** (경신24b:5)
 城隍 : 성황 **【도티신】** (경신20b:1)
 勢位 : 세위 **【형세와벼슬】** (경신20a:3)
 蒼龜 : 시귀 **【넛적의시라는풀과거복으로점치니령튼말】** (경신53a:8)
 心地 : 심디 **【마음】** (경신8b:7)
 弱冠 : 약관 **【이십】** (경신55b:6)
 洋洋 : 양양 **【성호고큰모양】** (경신56a:8)
 元旦 : 원조 **【경월초일일】** (경신38a:10)
 怨尤 : 원우 **【하늘를원호고사름을허물호단말】** (경신35a:1)
 有司 : 유스 **【시관】** (경신25a:7)
 陰府 : 음뷔 **【저싱】** (경신19a:1)
 因循 : 인순 **【일을시작호야호는배업고밀피여가는거등】** (경신33a:9)
 一紀 : 일기 **【열두히】** (경신15a:8)
 一命 : 일명 **【저근벼슬】** (경신19b:6)
 日夕 : 일석 **【쥬야】** (경신23a:6)
 長老 : 장로 **【웃듬중】** (경신21a:2)
 諸生 : 제싱 **【선비】** (경신25a:10)

- 除夕 : 제석 【셋달그믐】 (경신34a:10)
 諸神 : 제신 【성황】 (경신49b:1)
 竈神 : 조신 【조왕】 (경신1b:1)
 鳩酒 : 짐주 【술에짐새깃술둘너먹으면죽는것】 (경신6b:8)
 采輯 : 치즙 【키고거두어치만드단말】 (경신56b:6)
 八節 : 여덟절일 【립춘립하립츄립동춘분츄분동지하지】 (경신6a:6)
 編急 : 편급 【편협호고조급단말】 (경신36b:5)
 偏疽 : 편저 【창질일홈】 (경신58a:10)
 品官 : 품관 【놉흔벼슬】 (경신15a:10)
 風師 : 풍스 【바람부는신명】 (경신47b:2)
 海宇 : 해우 【툰하】 (경신44b:7)
 鄉貢 : 향공 【식골서션비싸올니는것】 (경신46a:1)
 顯官 : 현관 【큰벼슬】 (경신20a:2)
 回祿 : 회록 【불신명】 (경신48b:6)
 休咎 : 휴구 【길흉】 (경신27a:10)

위의 예들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어휘들이다. 이들 어휘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와 『경신록언석』의 협주 내용은 구체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협주 ‘집의 편지’가 있는 ‘가신(家信)’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자기 집에서 온 편지나 소식’으로, 협주 ‘움작이고우즐겨즐거운거동’으로 되어 있는 ‘고무(鼓舞)’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북을 치고 춤을 춤’으로, 협주 ‘과부와환부’가 있는 ‘과독(寡獨)’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 풀이되어 있다.

(2) 단형협주 :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簡厚 : 간후 【간략호호후중툰말】 (경신36a:2)

- 乾乾淨淨 : 간간정정 【마르디마르고조퇴조튼말】 (경신37b:5)
 愷惕 : 경택 【근옴의소소치단말】 (경신56a:1)
 規條 : 규도 【법과도목】 (경신35a:5)
 禁錢 : 금전 【대궐돈】 (경신42a:4)
 沂公 : 기공 【일흠은증이니기공을봉하다】 (경신24b:3)
 起數 : 기수 【팔즈보단말】 (경신27a:10)
 飢餓籍 : 기아적 【굶머줄여죽을사름적은칙】 (경신42b:8)
 魯男子 : 로남즈 【넛로나라남지니사식을멀니흐던사름】 (경신36a:8)
 大荒 : 대황 【큰흉년】 (경신47a:7)
 得舉 : 득거 【향공천거엇단말】 (경신46b:4)
 亂倫怪獸 : 란륜괴슈 【인륜어즈러인괴이흔증싱】 (경신21b:3)
 祿壽籍 : 록슈적 【복록과장슈홀사름적은칙】 (경신43a:1)
 漏脯 : 루포 【집기스시물무든포육이니먹으면죽는것】 (경신6b:7)
 離業垢 : (일흠을) 리업구 【죄업과진구를써나단말】 (경신20b:4)
 冥隸 : 명례 【명스례줄】 (경신43b:1)
 本省 : 본성 【태원】 (경신49a:10)
 本願經 : 본원경 【데군의경일흠】 (경신54a:4)
 奉眞朝斗 : 봉진조두 【참거술밭들고칠성피조회흐단말】 (경신9a:1)
 焚香告帝 : 분향고데 【하늘피고흐단말】 (경신31b:5)
 佛老 : 불로 【불시와로지라】 (경신16a:3)
 聘 : 빙 【례페흐여부르단말】 (경신39b:3)
 社 : 샤 【계긋튼것】 (경신35b:2)
 司命 : 스명 【조신】 (경신21a:8)
 絲粟 : 스속 【실과조라】 (경신38b:6)
 書香 : 서향 【글흐단말】 (경신40b:2)
 惜字 : 석즈 【즈지앗기단말】 (경신35a:7)
 善簿 : 선부 【착한사름뿐칙이라】 (경신13b:1)
 邵子 : 쇼즈 【일흠은옹이니강절선싱이라】 (경신27a:6)
 損益參訂 : 손익참딩 【덜머리으며참작흐여바로딩튼말】 (경신56b:6)

- 首輔 : 슈보 【슈상】 (경신39b:1)
 洵 : 순 【로천】 (경신48a:6)
 恂懦 : 순나 【근후호고나약단말】 (경신50b:5)
 是篇 : 제이편 【감응편】 (경신40b:8)
 軾 : 식 【동과】 (경신48a:8)
 神掌 : 신명 【문창데군】 (경신46a:8)
 實實落落 : 실실락락 【착실호고쇄락단말】 (경신37b:9)
 失韻誤字 : 실운오즈 【운을그릇달고글즈그릇쓰단말】 (경신25a:6)
 鶩毛管 : 아모관 【거유깃통】 (경신31a:8)
 惡簿 : 악부 【사오나온사름뿐칙이라】 (경신13b:2)
 閻君 : 염군 【염왕】 (경신54a:5)
 屋漏中 : 옥루중 【어두온방과혼자잇는더란말】 (경신30b:3)
 子媳 : 즈식 【오돌과며느리】 (경신11b:8)
 慈雲寺 : 즈운스 【결¹⁸일흠】 (경신27a:2)
 字紙 : 즈지 【글즈쓰인조희】 (경신24b:2)
 張仙像 : 장선상 【장시시선의화상】 (경신48a:7)
 張宿 : 장슈 【이십팔슈에장정별】 (경신48a:10)
 長安邸 : 장안더 【려직집】 (경신46b:10)
 障緣 : 장연 【귀마들이회지어마장되는것】 (경신45b:8)
 淨意 : 정의 【뜻을조케호단말】 (경신38b:1)
 正傳 : 정전 【팔즈보는칙】 (경신27a:7)
 齊雲岳 : 제운암 【디명】 (경신44a:9)
 趙闕道 : 조열도 【송째사름】 (경신31b:5)
 宗黨 : 종당 【겨리】 (경신22a:4)
 曾參 : 증모 【휘는삼이너지시라】 (경신24b:8)
 知縣 : 지현 【원】 (경신31b:2)
 天啓 : 턴계 【선성오들의일흠】 (경신31a:6)

18) ‘결’의 오기로 보임.

- 天地交 : 텃디교 【이교교합】 (경신59b:2)
 天下城隍 : 텃하성황 【토디신】 (경신49a:7)
 輒 : 철 【영빈】 (경신48a:9)
 撤關 : 철위 【시소것단말】 (경신39b:1)
 醮 : 초 【기도호는제】 (경신48b:9)
 取攜 : 취휴 【가지며쓰으단말】 (경신12a:1)
 值日功曹 : 치일공좌 【신명】 (경신55a:7)
 胎元 : 티원 【티포원신】 (경신52b:8)
 妒嫉 : 투질 【투질이다새움이니어진이롤투호고능흔이롤질호단말】
 (경신36b:4)
 解元 : 희원 【향공장원】 (경신50b:4)
 鄉試榜 : 향시방 【식골셔되논과거방】 (경신49a:7)
 顯微 : 현미 【현저함과은미호것】 (경신56a:8)
 黃疏 : 누른소 【신명떡살오논소지】 (경신34a:8)
 回籍 : 회적 【본향의도라가단말】 (경신40a:10)

위의 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한자 어휘들이다. 문헌에 나오는 모든 한자 어휘가 현대국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등재 어휘인 (1)의 예와 비교할 때 사전 등재 여부의 명확한 이유나 원인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사전학적, 어휘론적 연구가 면밀히 이루어진다면 어휘 정보를 얻고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장형협주

- 極善之人數固拘佗不得 : 극히착흔사람은쉬진실노져를잡지못호고팔
 즈라도 묘화진단 말】 (경신28a:2)
 加減法事 : 법스를가감호며 【경넉으며불스호매남의지물을보와더호며

덜흐단말】(경신20b:7)

惡之人數亦拘佗不得 : 극히악한사람도쉬또흔저를잡지못흐느니라

【도흔팔즈라도사오나와진단말】(경신28a:3)

忽考第一其言不驗而秋闈中式矣 : 홀연데일흐니그말이정험치아니코
츄위에중식흐니라 【ㄹ을시위에입격흐단말】(경신30b:8)

人皆以爲實行善事回天之報云同里後學羅禎記 : 사람이다며저되작
흐일을실노헝흐매하늘의갑흐심을도로히다닐으더라 【동리후학라정
이그록흐니라】(경신40b:6)

陰惡籍中 : 음악문서에쓰고잇는바 【벼슬홀복】(경신52a:7)

傷天地之和犯神明之怒莫此爲甚故 : 텃디의화기를상호이고신명의노
를범흐는거시이에서 【구과】 심흐거시 업는고로(경신52a:11)

才子機鋒 : 지즈기봉 【말에고동과날듯】(경신52b:7)

已驗二人 : 이미두사람을정험흐엇느니라 【월령광의에닐오디오월십칠
일이텃디교니텃디이기가교조만물 지일이라흐니라】(경신59b:6)

위의 예는 특정 문장이나 어구에 대해 장형으로 풀이한 협주이다. 단형 협주에 비해 수는 적지만 협주의 양식은 동일하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경신록언석』의 협주들이 대부분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한 것인 반면 위의 예 중 ‘同里後學羅禎記 : 【동리후학라정이그록흐니라】(경신40b:6)’는 원문의 내용을 협주로 제시한 특이한 양상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영남대 소장본 『敬信錄諺釋』(1880년)을 대상으로 한문 원문과 언해문을 대조하여 『경신록언석』에 나타나는 독자 중심적 언해 특징을 살펴보았다.

『경신록언석』의 독자 중심적 언해 특징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첫째, 선행과 악행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중국의 『경신록』을 언해한 『경신록언석』은 한글 전용의 언해이다. 내용 전체가 한글 전용이라는 특징적 양상은 『경신록언석』이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문헌임을 판단할 수 있는 1차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경신록언석』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인류보편적인 교화의 목적에서 언해되었다. 이는 특정 계층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셋째, 수록된 15장은 모두 예화 중심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비교적 쉽고 흥미롭다. 독자들은 흥미롭게 내용을 접하는 가운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수록 내용 분량은 차이가 있는데 ‘行不費錢功德例 헝불비전공덕례 [돈허비아니코흐는공덕]’가 36면으로 가장 많다.

넷째, 『경신록언석』에는 원문의 어휘를 그대로 한글로 옮겨 쓰는 연용 언해가 많다. 이는 자칫 독자층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직역적 언해 태도이다. 그러나 『경신록언석』의 연용 언해는 난해한 한자어들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적으로 쉽게 소통되는 한자어로 고유어와 등가적 의미를 지니는 한자어들이다. 따라서 독자층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연용 언해가 독자층에게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되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연용 언해를 통해 『경신록언석』의 언해자는 원문 『경신록』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경신록언석』에는 언해의 문맥 이해를 위해 설명이나 부가적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小字 雙行으로 협주가 달려 있다. 이는 독자층에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협주의 형식도 대부

분 ‘~것’, ‘~일흠’, ‘~말’ 등과 같은 명사로 간결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협주는 『경신록언석』의 언해가 독자 중심적임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더불어 『경신록언석』의 협주는 현대국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많은 어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연구 가치가 높다.

본고에서는 『경신록언석』에 대해 국어학적 분석이나 직역과 의역의 판단보다는 언해자가 독자층의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언해한 특징적 양상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번역학적인 관점에서 조선조 언해물의 번역학적 역사를 짚을 수 있으며 그 효용적 가치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음운, 어휘, 판본의 내용 비교 등 『경신록언석』의 내용을 좀더 면밀히 분석하여 언해의 특징적 양상을 세밀하게 밝히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경신록언석』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1997, p.44.
- 김영수, 『조선 중세 한문 번역본의 언어사적 연구』, 역락, 2001, pp.256-265.
- 김 탁, 『한국 종교의 관제 신앙』, 『도교문화연구』19, 한국도교문화학회, 2003, p.266.
- 김혜정, 『警民編諺解研究』, 『韓國言語文學』31, 한국언어문학회, 1993, pp.56-67.
- 남광우, 『敬信錄諺釋研究』, 『국어국문학』49·50, 국어국문학회, 1970, p.87.
- 박금자, 『15세기 언해서의 협주 연구』, 집문당, 1997, pp.71-76.
- 서수백, 『「자류주석」의 한문주석 수록 양상 연구』, 『국어사연구』10, 국어사학회, 2010, pp.178-184.
- _____, 『「훈몽자회」와 「자전석요」의 한문 주석 비교』, 『언어과학』54, 언어과학회, 2011, pp.120-128.
- 석주연, 『개화기 초기 국어의 형태와 통사 : 도교 관계 문헌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1, 우리말글학회, 2007, pp.114-131.
- _____, 『조선시대 한글 문헌의 간행 경위와 배포 양상 연구-‘소통’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57, 한민족어문학회, 2010, pp.49-54.
- 여찬영, 『조선조 언해서의 번역비평적 연구』, 『배달말』33, 배달말학회, 2003, pp.250-251.
- _____, 『효경언해의 번역비평적 연구』, 『언어과학연구』27, 언어과학회, 2003, pp.202-208.
- _____, 『여훈언해의 스포포스이론적 관점』, 『언어과학연구』 29집, 언어과학회, 2004, pp.162-175.
- _____, 『언해서 『이륜행실도』와 『오륜행실도』연구-원문비평적·효용비평적 관점에서-』, 『배달말』35, 배달말학회, 2004, pp.423-425.
- _____, 『中庸諺解의 번역언어학적 분석』, 『언어과학연구』38, 언어과학회, 2006, pp.2-18.
- _____, 『정속언해의 스포포스이론적 관점』, 『언어과학연구』43, 언어과학회, 2007, pp.250-254.
- 조남호, 『두시언해 한자어 연구』, 태학사, 2001, pp.67-79.
- 주송식, 『고대한어통론』, 중문출판사, 1989, pp.242-244.
- 최혜영, 『朝鮮後期 <善書>의 倫理思想 研究』,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7, pp.134-140.

Abstract

Analysis of Reader-Oriented eonhae Characteristics
in *Gyeongsinrokeonseok*

Seo, Su-Baek · Kim, Sun-Hee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reader-oriented eonhae characteristics in *Gyeongsinrokeonseok*(1880).

Gyeongsinrokeonseok is eonhae with the exclusive use of Hangeul which translated the Chinese *Gyeongsinrok*(collection of theories of Taoism and its retribution) with details about misdeeds and good deeds.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purpose of the eonhae is ‘good overcoming evil’, one of universal values and the entire contents are written in Hangeul only, are the primary reason to consider that *Gyeongsinrokeonseok* is effective enough to attract a much wider readership. Particularly, Chapter 15 of *Gyeongsinrokeonseok* are centered around example-based stories, so its contents are relatively easy and interesting. Therefore, readers can learn lessons naturally by reading the contents interestingly. There are many cases of the Leaving traces of source text in *Gyeongsinrokeonseok* which just transcribes from vocabularies of the original to Hangeul. It is a slightly literal eonhae which can make readers hard to understand the contents. However, there are not that great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contents because the Leaving traces of source text in *Gyeongsinrokeonseok* is not abstruse Chinese characters but generally easily-communicated characters. That manner can even help deliver the contents more simply and clearly to readers. It is revealed that, according to the Leaving traces of source text, the translator tried to translate *Gyeongsinrokeonseok* by being faithful to the original.

In *Gyeongsinrokeonseok*, there are paraphrastic scripts in small letters written in two lines for parts requiring more explanation or extra information to help understand the context of the eonhae, which is significant information

to deliver the contents to readers more easily. In addition, paraphrastic scripts mostly consist of simple noun types such as ‘~thing’, ‘~name’ and ‘~word’. These kinds of paraphrastic scripts distinctly explain that the eonhae of *Gyeongsinrokonseok* is fully reader-oriented. Moreover, the paraphrastic scripts of *Gyeongsinrokonseok* are, as materials to secure much word information not registered in a modern Korean language dictionary, high in research value.

This study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translated based on whether readership would accept or not rather than Korean linguistic analysis, or judgment of literal and liberal eonhaes about *Gyeongsinrokonseok*. It will help point out the history of eonhae studies of target materials in the Joseon Dynasty from a perspective of eonhae studies, and review its useful value based on the distance between the eonhae and leadership.

Key Word : Gyeongsinrokonseok, eonhae, Hangeul, Taoism, reader, translator, Leaving traces of source text, paraphrastic script.

서수백

소속 : 경운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조교수

주소 : (730-739)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55번지

전화번호 : 054-479-1325 / 010-5437-1626

전자우편 : jdche@hanmail.net

김선희

소속 : 경운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주소 : (730-739)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55번지

전화번호 : 054-479-1325 / 010-2505-7772

전자우편 : shkim@ikw.ac.kr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3년 7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2일 게재 확정됨.
--